

임성재 연속우승 놓쳤지만 '영건' 우뚝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자와 2타차 3위 시즌 페덱스컵 랭킹은 토마스 제치며 1위 도약

한국골프의 '영건'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주 연속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돌아섰다.

임성재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파72·7454야드)에서 열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일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적어내 1타를 잃었다.

어려운 코스에서 합계 2언더파 286타를 친 임성재는 우승자 티렐 해턴(잉글랜드·4언더파 284타)에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8-2019 시즌 신인상을 차지했던 임성재는 지난해 혼다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우승 없는 신인왕'이라는 꼬리표를 뒀 뒤 다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강렬한 '영건' 이미지를 팬들에게 심어줬다.

임성재는 또한 시즌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저스틴 토머스(미국·1403점)를 제치고 중간 순위 1위(1458점)로 올라섰다.

임성재는 "지난주 우승 뒤 이번 주에도 우승 경쟁을 했으니 나 자신에게 95점을 줘도 되겠다"며 "오늘 후

반에 몇 개 홀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지만 경기를 잘 마무리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전반 9개홀을 도는 동안 그린 적중률이 높지 않았지만, 정교한 쇼트게임과 퍼트로 경기를 풀어갔다.

3번홀(파4)에서는 4m가 조금 넘는 퍼트를 떨어뜨려 전반전에 유일한 버디를 잡았다.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던 임성재는 11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위터 해저드를 가로질러 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갔고, 세 번째 샷마저 짧아 그린 위에 울리지 못해 보기를 적어냈다. 이때까지 3타차 선두를 달리던 해턴은 11번홀에서 티샷을 위터 해저드에 빠뜨린 끝에 더블보기를 했다.

임성재는 12번홀(파5)에서 곧바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임성재는 두 차례 퍼트로 가볍게 버디를 잡고 해턴과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임성재는 13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리고, 보기 퍼트마저 넣지 못해 2타를 잃고 말았다.

임성재는 "그런까지 100m 정도를



임성재가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에서 열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일 라운드 경기에서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기고 앞 바람이 불고 있었다. 52도 웨지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샷을 했는데 너무 짧아 물에 빠졌다"고 돌아봤다. 15번홀(파4)에서 1.2m 퍼트를 놓쳐 다시 한타를 잃은 임성재는 16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하며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섰다.

임성재는 18번홀(파4)에서 위터 해저드를 넘겨 핀을 바로 공략하는 과감한 두 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지만, 4m 거리의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옆에서 멈춰 입맛을 다셨다. 해턴은 PGA 투어 60경기 출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167만4000달러(약 20억1000만원)를 받았다. 유러피안투어에서는 4승을 올린 해턴은 손목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기쁨이 더했다.

해턴은 "이 같은 상징적인 대회에서 우승해 달 위에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턴은 "이 같은 상징적인 대회에서 우승해 달 위에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 오늘 선발 동시 출격

류현진, 팀파베이전 컨디션 조절에 집중 김광현, 미네소타전 선발 경쟁 우위 전력

'한국인 왼손 듀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이 10일(한국시간) 선발 투수로 동시에 출격한다.

9일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10일 오전 2시7분 홈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TD 볼파크에서 열리는 팀파베이 레이스와의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김광현은 10일 오전 2시5분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애스의 해먼드 스타디움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두 번째로 선발 등판해 페이스를 끌어올린다.

류현진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두 번째로 실전에 등판해 컨디션을 조율한다. 팀파베이에서 뛰는 인천 동산고 후배인 최지만(29), 일본인 타자 쓰쓰오 요시토모와 투타 대결을 벌인다.

팀파베이는 왼손 에이스 블레이크 스넬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8일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3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당시 공 41개를 던진 류현진은 5일엔 원정지에서 치른 시범경기에 출

전하지 않은 대신 홈에서 마이너리그 타자들을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 투구에 나서 3%이닝 동안 50개를 던졌다.

투구 수와 이닝 수 늘리기라는 목표를 착실히 수행 중인 류현진은 올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자주 격돌하는 팀파베이 타선을 맞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타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홈으로 불러 치르는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전의 선발 투수가 유력한 류현진은 10일 경기를 포함해 시범경기에서 3번 더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3경기 연속 무실점한 김광현은 5 선발 진입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6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 구원 등판한 이래 나올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김광현은 3이닝을 던지거나 투구 수 45개를 채울 전망이다.

김광현은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볼과 111km짜리 느린 커브, 전가의 보도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4개 구종으로 시범경기 3경기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 탈삼진 7개라는 빼어난 성적을 올리고 빅리그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시범경기 선발 등판은 지난달 27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2이닝 3탈삼진 무실점한 이래 11일 만이다.

김광현은 직전 등판에서 아쉬움을 남긴 제구를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황의조 8경기만에 교체출전 1-1 무승부 리그 12위 안착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 보르도의 공격수 황의조(28)가 후반 교체 투입돼 상대 선수의 퇴장을 끌어내는 등 활약했으나 소속팀의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다.

황의조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테티엔의 조프루아-기샤르에서 열린 2019-2020 리그앙(1부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1-1로 맞선 후반 27분 사무엘 칼루와 교체 출전에 끝까지 뛰었다.

황의조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건 1월 11일 올림피크 리옹과의 20라운드 이후 8경기 만이다. 이번 시즌 6골을 터뜨린 황의조는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다.

보르도는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끝내 1-1로 비겨 승점 1을 나눠 가져 리그 12위(승점 37)에 자리했다.



골 넣는 마르시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양티노 마르시알(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로빙 패스를 이어 받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열린 경기에서 맨유가 맨시티를 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韓-中 올림픽 여자축구 4월 9-14일 개최

개최 장소는 언급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한국과 중국의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가 4월 9일과 14일 개최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중국의 도쿄올림픽 최종예선플레이오프 1, 2차전을 4월 9일과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플레이오프는 애초 지난 6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1차전을 치르고, 오는 11일 호주 시드니 인근 캄벨타운 스타디움에서 2차전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2차전은 중국의 홈 경기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게 돼 호주로 장소가 옮겨졌다.

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용인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하면서 경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두 경기 모두 4월 이후 치르기로 합의해 AFC에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AFC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3월에 열린 AFC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등을 연기하고 새로운 경기 일정을 참가팀 협회·연맹 등과 조율하고 있다.

AFC는 오는 18일 호주에서 치를 예정이던 울산 현대-퍼스 글로리(호주) ACL 경기도 연기했다. 연합뉴스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대륙종합농기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확장이전

감굴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히트상품 이종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농자 대상기종

남원! 300m 위미농협 주유소 위미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300m) 판매/AS문의 **064) 767-3430**